

종계변무(宗系辨誣)와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 인식

이혜순*

- I. 문제제기
- II. 종계변무를 위한 사행의 역사와 사신들의 활동
- III. 조선 사신들의 종계 오류 및 사왕시해 무고를 해명하는 접근 방식의 변화와 의미
 - 1. 사실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 태종의 주문
 - 2. 부자·군신 윤리의 강화를 통한 변무의 구체화: 남곤과 기대승의 주청문
 - 3. 조선 국왕의 성효(誠孝) 강조와 변무 내용의 수정 확인: 최립과 고경명의 서신
- IV. 종계변무에서 드러난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 인식과 사행문학으로서의 성과
 - 1.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 2. 종계변무 문장의 사행문학으로서의 성과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명나라 태조의 『조훈록(祖訓錄)』에 기재된 조선 태조 종계의 오류와 사왕시해라는 악명을 바로잡기 위해 명나라에 사행한 사신들의 종계 변무 문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명나라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계변무의 단초는 명 태조 주원장이 쓴 『황명조훈(皇明祖訓)』이 제공한 것으로, 이를 개정하려는 조선 측의 노력은 태종 시부터 시작되었으나 특히 중종 연간부터 변무 활동이 끝난 선조 22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러한 오류가 변무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본고의 고찰 대상인 문장들이었다. 종계변무는 다음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문제제기 단계로, 태종조의 주청문은 명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둘째는 변무의 구체화 단계로, 남곤과 기대승의 주청문은 부자·군신 윤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동시에 과거 주청에 대한 명나라 측의 답변을 일일이 세밀하게 기록하여 명나라 측이 되풀이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환기시킨다. 셋째는 수정 확인 단계로, 최립과 고경명이 예부의 관리들에게 쓴 서신에서 변무에 대한 조선 국왕의 지극한 정성과 조선의 남다른 군신 관계와 윤리를 부각시킨다. 사실 기록의 오류에서 윤리 문제로의 변질은 명나라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대신 종계변무를 오히려 조선 국왕의 성효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데에 기인한다. 조선 조정과 사신들이 종계변무에 바친 노력은 그 오기와 약명이 문명국 조선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관점 때문이어서 종계변무 활동은 당시 조선에게는 문명의 회복을 위한 행진이었다.

핵심어: 종계변무, 황명조훈, 명나라, 사신, 남곤, 기대승, 최립.

1. 문제제기

본고는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명나라에 사행했던 조선 사신들이 공적 문장을 통해 보여준 명나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명나라 사행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명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나’라는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에 있다.

명나라는 한나라 당나라와 같이 한족이 세운 문화대국으로 한·당 두 나라가 고구려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드러내던 것과 달리 비록 요동을 둘러싼 조선과 고려에 대한 경계심을 끊임없이 노정하기는 했으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이 후손들에게 남긴 조훈 제1장에서 주변국 중 명나라를 침략할 의도가 없는 나라들을 정벌하

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것도 그 한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임진년 일본의 침략으로 국망의 위기에 몰렸을 때 명나라는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었고, 이로 인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었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내세운 조선 사대부들의 지극한 숭앙을 받게 된다. 조선에서는 18·19세기 근 200년에 걸쳐 명나라의 황제들을 제사하는 등 두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명나라 멸망과 관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¹⁾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 사행이 대륙의 어느 다른 왕조들에 비해 유독 더 힘들었던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명나라는 개국 초부터 폐쇄적이었고 고려와 조선을 경계하면서 사신들을 힘들게 했다. 모든 사행이 그러했겠지만 특히 초기 명나라 사행은 그 나라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요구나 제한으로 야기된 고난의 행군이었다. 때로 고려·조선의 사신들은 입경이 거부되거나, 명나라에서 매질을 당하고, 구금되고, 유배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명나라 사행은 목숨을 건 일이기도 했다.

본고에서 다루는 종계변무 사건은 조선 사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가장 어려운 대명외교 업무 중 하나였다. 종계변무는 명나라 태조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李成桂)를 고려의 부패관리인 이인임(李仁任)의 아들이고, 네 왕을 시해한 것으로 잘못 기록했고, 이것이 그대로 『대명회진』에 전제되었음을 알게 된 조선 사신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행했던 사건이다. 이러한 오류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고려 말 이성계와 대립하던 이들이 명나라로 도피해 그를 모함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²⁾ 아니면 “단순한 오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악의 있는 흠집을 잡아 대조선 관계를 선점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³⁾이 많은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모함은 조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특히 종계 오류가 다시 불거진 중종 13년 이후 수정본 『대명회진』의 완질을 받아온 선조 22년까지는 종계변무가 조명 관계에서 조선이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치적 과제여서 명나

1) 계승범, 「조선 속의 명나라: 大報壇을 통해서 본 조선 지배층의 중화 인식」, 『명청사연구』 제35집, 명청사학회, 2011, 153~154면.

2) 종계변무 주청문에서 남곤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했고 기대승의 <변무주(辨誣奏)>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3) 박성주, 「조선전기 조·명 관계에서의 종계문제」, 『慶州史學』 제22집, 경주사학회, 2003, 203면.

라에 이를 위한 전사(專使)를 연이어 파견하고 뛰어난 문사들의 주청문이 연달아 지어지는 등 그 수정을 위한 줄기찬 노력이 이어졌다.

이러한 조선 측의 변무 과정은 이미 사학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바 있거니와,⁴⁾ 본고는 조선 측이 종계의 오류와 사왕시해의 악명을 바로잡기 위해 황제에게 보낸 국서와 예부 담당자들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이들에 대한 중국 측의 답변과 칙서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숨겨진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명나라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종계변무를 위한 사행의 역사와 사신들의 활동

종계변무⁵⁾의 단초는 명 태조 주원장이 쓴 『황명조훈(皇明祖訓)』이었다.⁶⁾ 처음에는 『조훈록(祖訓錄)』이라 명칭했던 이 책은 홍무 2년(고려 공민왕 18년, 1369)에 편찬을 시작해서 6년에 완성되었다. 홍무 9년 수정을 거쳐 28년(조선 태조 4년, 1395)에 이를 다시 증보해서 이름을 『황명조훈』으로 바꾸었다. 이 책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 두 구절이다. 하나는 서에 나오는 “한 글자라도 바꿀 수 없다(一字不可改易)”라는 구절이고, 다른 하나는 제1장에 나온다.

나는 후세 자손들이 중국의 부귀에 의지해서 일시의 전공에 욕심을 내서 까닭 없이 군사를 일으켜 사람 목숨을 다치게 할까 두렵다. 이것은 절대 불가하다

4) 구도영, 『조선 전기 대명 유로사행의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제117집, 진단학회, 2013; 권인용, 『명 중기 조선의 宗系辨誣와 대명외교-권벌의 <조천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24집, 명청사학회, 2005; 박성주, 『朝·明 관계에서의 종계문제』, 『경주사학』 제22집, 경주사학회, 2003.

5) 조선 측의 종계변무 과정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의 <종계변무(宗系辨誣)>(권17), 『후광세첩(厚光世牒)』 권1 『문정공사적(文靖公事蹟)』의 <종계변주록(宗系辨奏錄)>에 그간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본고는 태종 시와 중종 14년(1519) 남곤이 쓴 주청문, 선조 5년(1572) 기대승의 <변무주>, 명나라 예부 관리들에게 보낸 최립과 고경명의 서신들을 중심으로 한다.

6) 본고에서는 維基文庫(<https://zh.wikisource.org/>), 『四庫全書存目叢書』 수록본(<https://baike.baidu.com/item/皇明祖訓/1995697?fr=aladdin>)을 텍스트로 했다.

는 것을 단단히 기억하라. … 이제 정벌하지 않을 여러 주변국들을 다음에 나열한다. 동북 : 조선(즉 고려키다. 그 이인임과 아들 이성계, 지금 이름 단(坦)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무 8년으로부터 28년까지 전후에 무릇 왕씨 네 왕을 시해하였으므로 아직 그냥 기다리게 하였다.」⁷⁾

서에 나오는 내용 중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라는 부분은 후대 명나라 측이 조선의 종계변무를 받아들이면서도 후에 조훈을 전제한 『대명회전』의 수정 보완본에서 직접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단지 조선 측의 요구를 주로 처리한 근거가 되고, 조훈 1장의 태조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로 네 왕을 시해하였다는 구절은 종계변무의 핵심 내용이다.⁸⁾

조선국의 창건은 홍무 25년이다. 이 글은 홍무 28년이란 연대로 보아 증보판에 근거한 것인데 본래 초판에도 이 구절이 있었는지는 미상이나 태조 3년(홍무 27년) 4월에 황제가 보낸 사신 황영기(黃永奇)⁹⁾ 등이 가져온 축문에는 “이인임의 후사인 성계로 지금 이름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었다.¹⁰⁾ 국호를 칭한 것은 태조 1년 11월이고, 명 태조에 의해 조선으로 결정된 것은 태조 2년이나 이 시기까지 이 태조는 즉위에 대한 인준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자신을 ‘권지국사’로 호칭하다가 태조 3년 6월 도독부의 자문 속에 “조선 국왕에게 자문하니”라는 구절을 받은 후 비로소 즉위 인준을 확인하게 된다. 명 태조는 조선 태조 7년 세상을 떠났고, 같은 해 조선 태조는 정종에게 양위했다. 두 나라 모두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했던 시기였고, 이러한 점에서 태조의 상세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이 끝내 바로잡아지지 못했던 연유가 이해된다.

7) “吾恐後世子孫，倚中國富强，貪一時戰功，無故興兵，致傷人命，切記不可。… 今將不征諸夷國名，開列於後。東北：朝鮮國(即高麗。其李仁人，及子李成桂名且者，自洪武六年至洪武二十八年，首尾凡弑王氏四王，故待之)”

8) 『황명조훈(皇明祖訓)』의 ‘今將不征諸夷國名，開列於後’을 ‘이제 정벌하지 않을 여러 주변국들을 다음에 나열한다’ 대신 오히려 ‘이제 (아직) 정벌하지 않을 여러 주변국을 다음에 나열하고자 한다’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는 한 심사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 구절에 명 태조가 앞으로 이들 나라들의 정벌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욕망이 은장되어 있고, 따라서 ‘不征’을 ‘未征’의 뜻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이 구절이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지 말라는 후손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나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9) 황영기 대신 ‘黃承奇’로 표기된 것이 조선과 명나라 전적 모두에 나온다.

10)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6월 16일자 남곤의 주청문에 나온다.

조선에서 종계의 오류를 확인하게 된 것은 태종 2년[1402] 1월에 조온(趙溫)이 경사에서 돌아와 조훈조장(祖訓條章) 안에 조선 국왕이 이인임의 후사라는 구절이 있음을 알린 이후부터이다.¹¹⁾ 조온이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사왕시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황명조훈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태종 3년 11월 사은사들 편에 보낸 종계를 밝힌 주본에서도 드러난다. 태조 연간 황영기가 가져온 축문을 통해 종계 오류를 알게 되어 이를 분명히 밝히는 주문을 올렸으나 잘못이 그대로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명나라 영락 황제가 조선 국왕이 이인임의 후손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틀린 것이니 그의 말에 준하여 개정하려고 명한 것을 보면 그 착오를 올바르게 인식한 듯하다. 단지 “그대로 흠록(欽錄)하였다”라고 했으나 이를 기록한 공식문서가 보이지 않아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는 황명은 엄격하게 지키면서도 다른 한편 조칙을 방기하는 명나라의 이중적 모습이 드러난다.

이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중종 13년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된다. 그 사이 조선에서는 영락 황제가 개정하라는 교지를 내렸다는 말을 듣고 이미 개정된 것으로 생각한 듯 이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중종 13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이계맹(李繼孟)에 의해 조훈 전문이 수록된 『대명회전』¹²⁾에 종계의 오류뿐만 아니라 이 태조가 고려 네 왕을 시해하고 즉위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게 된다.¹³⁾ 여기서 네 왕은 우왕, 창왕, 공양왕과 공양왕의 세자 석(奭)이다.¹⁴⁾ 중종은 남곤(南袞) 주도 하에 주청문을 짓게 하고¹⁵⁾ 그를 명나라에 정사로 파견한다. 예부상서 모징(毛澄)은 이 태조의 건국과 조선이란 명호가 모두 주원장에게서 나왔고 『일통지』에

11) 『태종실록』 태종 3년 11월 15일자에 이빈과 민무홀이 명나라에 갔고 간 주문에 흥무 35년 [태종 2년] 정월 초8일 조온이 경사에서 돌아와서 조훈조장(祖訓條章) 내에 “신의 종계가 이인임의 후손”이라 하였음을 보고하는 구절이 보인다.

12) 『대명회전(大明會典)』은 전 180권. 명나라 효종(孝宗) 홍치(弘治) 10년(1497) 서부(徐溥)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했고, 15년 완성되었으며, 무종(武宗) 정덕(正德) 5년(1510)에 이동양(李東陽) 등의 수정을 거쳐 반포되었다. 『정덕회전(正德會典)』이라고 약칭된다. 조선 사신이 본 것은 『정덕회전』으로 보인다. 『欽定四庫全書』 史部13, 明會典 提要.

13)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4월 21일.

14) 이궁익, <종계변무>,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 『연려실기술』 권17.

15)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6월 16일에 나온다.

도 태조가 추대에 의한 것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종계와 오명의 개정을 허락해줄 것을 청하여 무종의 승인을 받는다. 중종 14년(1519) 3월 사신들은 『대명회전』을 다시 발간할 때 이를 정(正)으로 삼을 것이라는 모정의 말을 듣고 개정을 윤택한다는 칙서를 등사해서 옥새를 찍어 받아왔다.

10년 뒤인 중종 24년(1529) 8월에 유보(柳溥) 등은 『대명회전』을 중수한다는 사실을 듣고, 본국의 원래 주문 및 그간 중국 역대 황제들의 답변을 사실대로 기록해서 개정해 줄 것을 예부에 올리고 ‘조선국 배신이 올린 본국 종계의 일은 이미 조종조의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으니, 너희 예부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바른 대로 기재하여 사관에 송부하여 채택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세종의 성지를 받는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개정은 미루어졌다. 또 다시 10년 뒤인 중종 34년(1539) 7월에 권벌(權穰)이 개종계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다음 해 2월 『대명회전』을 속찬할 때 종계를 고쳐주겠다는 칙명을 받고 돌아왔으나 이때 개정 시 잘못을 수정한다는 것이 원문의 수정이 아니라 부록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다.¹⁷⁾ 이 시기 예부상서는 엄숭(嚴嵩)이었다.

명종 18년(1563) 조선 사신이 받은 자문에는 “내부에 공문을 보내어 전년에 간행한 『대명회전』 가운데 조선국에 대한 책 하나를 한림원에 보내어 본국에서 아뢰어 온 내용을 요약하여 찬정해서 황제께서 흠정하신 후 본조(本條)의 끝에 부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황제께서 칙서 한 통을 내리시어 성상의 뜻을 밝게 보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와 함께 그 시행 시 북경에서 세상을 떠난 김주(金澍)를 대신해서 서장관 이양원(李陽元)은 “『대명회전』의 예전 글 밑에다가 그대 조상의 진짜 파를 기재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실을 기록하여 해와 별처럼 밝게 하려고 한다.”는 황제의 편지를 받는다. 이와 같이 종계와 사왕시해에 대한 여러 번의 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중 사왕시해 건은 선조 6년까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러나 선조 10년 정축사행 시 최립이 정사 윤두수(尹斗壽)를 대신해 당시 예부상

16) 『중종실록』 중종 24년(1529) 9월 28일.

17) 권벌(權穰), <조천록(朝天錄)>, 『충재집(冲齋集)』 권7. 11월 21일자. 권벌이 명나라에 간 것은 중종 34년(1539)이다.

18) “주청사의 서장이 도착했는데 … 대개 종계를 개정하는 일에만 응답하고 악명을 변무한 일에는 가부가 없었다 합니다.”(『선조실록』 선조 6년(1573) 8월 12일)

서에게 쓴 편지에서 완성된 초고의 사본을 요구하고 있어 그 사이 사왕시해의 오류 역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 11년(1578) 2월 주청사 황임(黃琳)은 이제는 책이 완성되어 반사되기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 탈루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고 돌아왔다. 선조 14년(1581) 신사사행 시에는 사신들이 북경에 머물면서 『대명회전』의 수찬과 반포를 기다리겠다고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선조 17년(1584) 2월 주청사 황정욱(黃廷彥)은 『회전』의 조선 부분이 아직 어람을 받아 간행되지 않아서 초본을 받아왔다. 선조 20년(1587) 신사행(申時行) 등이 개수하여 『중수대명회전』 속칭 『만력회전』이 간행되자 다음 해 2월 사은사 유흥(兪泓)이 완성된 『대명회전』을 가져왔는데 아마도 이 태조 관련 기록이 들어있는 책[付卷]만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선조 22년(1589) 10월 1일 성절사 윤근수(尹根壽)가 『대명회전』 전질을 받아오자 이를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함으로써 그간 명나라와 벌인 진실 규명의 긴 여정을 마쳤다.

이와 같이 종계변무는 결국 거의 200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하면서 조선이 명나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종계와 오명이 변무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본고의 핵심 고찰 대상인 문장이었고, 그것은 대부분 명문이었다. 주문의 초고를 작성할 때 예부상서 모징이 낭중에게 “초고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 문헌이 있는 나라에 웃음거리가 되지 말게 하라.” 하였고, 초고가 완성되자 상서가 많이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¹⁹⁾ 모징은 역대 예부상서 중 가장 우호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선을 도와 준 인물로 그러한 배경에는 조선 문사들이 보여준 문장을 통한 조선에 대한 이러한 높은 평가가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III. 조선 사신들의 종계 오류 및 사왕시해 무고를 해명하는 접근 방식의 변화와 의미

조선이 태조 이성계의 종계와 사왕시해라는 잘못된 기록을 수정한다는

19) 이극익, <종계변무>, 『선조초고사본말』, 『연려실기술』 권17.

여러 번 확답을 받고나서도 원고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고가 올바르게 『대명회전』에 수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다. 종계변무 문장은 조선 국왕의 이름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와 사신들이 명나라 예부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영락 황제와 정덕·만력 황제에게 보낸 주청문을, 후자는 이 문제의 담당자들인 예부의 관리들에게 쓴 서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문장은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이거니와, 여기에는 작성자의 사상이나 문학적 배경에 기인된 바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종계변무를 바라보는 명나라의 시선이나 의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시대적으로 볼 때 종계변무는 문제 제기, 변무의 구체화, 그리고 수정 확인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1. 사실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 태종의 주문

종계 오류를 해명하여 명나라에 보낸 주문은 태종 3년(1403) 사은사들을 통해 보낸 것이 처음이다. 누가 썼는지는 미상이다. 주문은 태조의 선세뿐 아니라 이인임의 종계까지 밝혔고, 특히 이 태조가 위화도 회군을 결정하면서 명나라에 죄를 입기보다는 차라리 신씨인 우왕에게 죄를 입겠다고 한 점, 명 태조가 조선 창건을 인정하고 이 태조에게 단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 준 점 등 명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종계 오류를 접하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 외에는 어떤 수사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자(聖慈)께서 굽어 살피시어 ‘신의 종계’를 고쳐 기록하여 주시으면, 한 나라가 매우 다행이겠습니까.”라고 하여 태조의 종계를 태종으로 이어진 한 가문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다.²⁰⁾

이 주문은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잘못된 듯하다. 다른 자료에 따라서 개정하라.’는 명나라 영락 황제의 명을 받았으나, 중종 13년(1518)까지 전혀 개정되지 않았음을 명나라에 갔던 사신을 통해 알게 된다. 이처럼 영락 황제의 명이 준수되지 않고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단지 『일통지(一統志)』의 이 태조 관련 기록은 훗시 영락 황제의 조직

20) 『태종실록』 태종 3년(1403) 11월 15일.

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처음 명 태조의 명으로 천하 군현·지리·형세를 수록한 『대명지(大明志)』를 편찬했으나 전하지 않고, 대신 성조[영락황제]가 천하 도경을 채록해서 찬집한 것은 완성되지 못한 채 중지되었다. 영종 시대에 다시 이를 중편해서 천순 5년(1461) 4월 완성했고 황제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라는 이름과 어제(御製) 서문을 내렸다.²¹⁾ 이러한 점에서 『일통지』의 “왕요가 혼미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모(태조)를 추대해서 국사를 주관했다”라는 구절은 그간 명나라 조정에서 보여준 입장으로 볼 때 그 근거가 영락 황제의 조칙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부자·군신 윤리의 강화를 통한 종계변무의 구체화: 남곤과 기대승의 주청문

종계와 사왕시해 변무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조선 중종 연간, 명나라 무종 연간이다. 그 후 조선에서는 중종과 명종, 그리고 선조 초기까지 이를 위한 전사가 과전되고 황제에게 전하는 주청문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남곤이 정덕 무종 황제에게 보낸 글과 기대승의 명 만력 신종 황제에게 보낸 주청문이 대표적이다.

남곤이 주도한 주청문²²⁾은 중종 명의의 공식문서로 그간 종계 오류와 관련된 사실들, 특히 영락 황제의 개정 명령을 확인시키면서 이 태조의 즉위 과정 역시 좀 더 소상하게 기술했다. 조선 조정에서 죄를 입어 명나라로 도주한 이들의 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 주청문 역시 태종대에 보낸 것과 같이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동시에 “바라옵건대 성자께서 선황제의 명을 따르시어, 떠도는 말의 잘못을 바로잡아 ‘신의 일가’로 하여금 신의 조상을 찾게 하시고”라고 한 구절에서 이 태조의 종계 오류와 사왕시해라는 악명을 국가적인 입장보다는 태조 일가의 가문의 문제로 접근했던 태종의 주청문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왕이 곧 국가이기는 하지만 “신의 조상을 찾게 해주시면 우리

21) 『欽定四庫全書』電子版 史部11 明一統志 提要.

22) 자료는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6월 16일자를 중심으로 한다.

조선에 다행이겠습니까”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것은 남곤이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이라고 하여 국왕과 국가를 구분한 것과 차이가 있다. 남곤은 주청문과 별도로 예부상서 모정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동일하게 그 구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대저 남을 아버라 부르는 것은 빌어먹는 아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비록 하찮으나 그래도 서관(庶官)과 백성의 무리가 있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도리어 빌어먹는 아이가 자기 아버를 아버지라 하는 것만도 못하게 되었으니, 자손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²³⁾

이러한 점에서 보면 종계변무는 이성계의 ‘자손’으로 수행하는 사건으로 무엇보다 부자 윤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성조의 보전(寶典)이 또한 와전이란 말을 먼치 못할까 두렵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이러한 오류가 결국 명나라의 귀중한 책인 『대명회전』의 권위와 명성 그리고 신뢰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이번에도 “특별히 요청한 바를 윤택”한다는 사실을 명기한 정덕 황제의 칙문을 보낸다.

남곤의 주청문 이후 사신들의 명나라 사행은 전술한 대로 기대승의 <변무주>가 쓰여진 선조 5년까지 이어진다. <변무주> 서두에 여러 대에 걸쳐 바로잡지 못한 종계가 이 글로 올바르게 개정되었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시기까지 명나라가 거듭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⁴⁾ 특히 기대승은 『대명회전』의 조선국 관련 부분에 변무 내용을 요약하고 황제가 본 후 그것을 주로 부록한다는 주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종계변무는 이미 성취된 것으로 알고 온 나라가 기뻐하고 감격하여서 표문을 올려 사례하였으나 그 후 흥정개정(欽定改正)본에 네 왕을 시해했다는 무함의 본말이 서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단지 사실의 환기를 넘어 명나라에게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미를 지닌다. “선신인 휘(명종)는 애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아뢰고자 하였으나, 그 후 모친상을 당하여 애훼(哀毀)로

23) 『중종실록』 중종 14년(1519) 4월 7일.

24) “累朝申辨，終未歸正，因此奏改定會典，而宗系始正，國誼昭雪。”(기대승, <변무주>, 『고봉집』 권2)

병이 들어 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신하와 온 나라 신민들이 깊이 애통해하는 바입니다.”라는 구절로 보아 변무의 목적이 후손으로서의 선조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차츰 전환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변무주>에서는 명나라와 조선을 군신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있거니와, 명나라는 왕이고 아버지이며, 조선은 신하이고 자식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가 “비록 소방이지만”이라는 자주적 정체성을 함축한 남곤의 주청문과 대비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종계를 일가의 문제로 국한하던 남곤의 인식을 넘어서고 있다.

신은 옳드려 생각하옵건대,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 신하가 억울하고 절박한 뜻이 있으면 군부에게 하소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기웁니다. 이것은 천리와 인정으로 볼 때 필연적인 것입니다. 신이 만일 치욕을 참고 민망함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끝내 성상 폐하에게 토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천지가 만물을 길러 주는 인(仁)을 스스로 막는 행위이니, 신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²⁵⁾

이쩌면 이것은 조선의 명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기보다는 양국 관계에 개재하는 명교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명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단지 효(孝)의 문제가 아닌 인(仁)의 문제가 개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 이후는 다시 과거 주청문처럼 영락 시대부터 가정 연간까지 있었던 사신들의 주청에 대한 명나라 측의 답변을 일일이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다. 여기에는 특히 명 황제의 답변, 예부의 자문 등이 열거되어 명나라 측이 되풀이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환기시킨다. 그 다음은 다시 종계와 태조 이성계의 즉위까지의 사실들을 열거한다. 이 점은 이전 남곤의 주청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단지 최영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남곤은 최영에 대해 “그는 배운 것이 없고, 도의에 어긋나며, 몰상식한 위인으로 우왕에게 아첨하여 그 딸을 비로 바치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범하고자 하여 여러 장수들을 독

25) 기대승, <변무주>, 『고봉집』 卷2.

축해 보냈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태종의 주문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반면, 기대승은 단지 “우왕 14년에 이르러 무신인 최영이 신우에게 권하여 군대를 일으켜서 요동을 침범하려고 여러 장수를 감독하여 보냈습니다.”라고만 했을 뿐이다. 최영에 대한 비판은 그가 요동을 공격하여 명나라를 자극했다는 점과 종계 문제의 당사자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부각시켜 명나라의 환심을 사려 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성계의 새 나라 창건을 위한 중요한 명분이 되기 때문에 종계변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대승은 주청문에서 명과 조선의 군신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최영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시기는 이미 명나라 건국 후 200여 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최영의 요동 정벌이 명나라 측에 별로 큰 의미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 때문이거나 아니면 국내적으로는 조선조 창건에 적극 참여했던 훈구와 혁명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이에 반발했던 사람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에 기인되었을 수도 있다. 종계와 사왕시해의 변무라는 동일 목적으로 지어진 문장이기는 하지만 사신들의 문장에는 이와 같이 그들의 학문적, 정치적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조선 국왕의 성효(誠孝) 강조와 변무 내용의 수정 확인: 최립과 고경명의 서신

기대승의 <변무주>는 종계와 사왕시해라는 무고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다. 그러나 여전히 원고가 조선의 요구대로 올바르게 빠짐없이 쓰였는지, 더 나아가 사본으로 그 내용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대명회전』 간행 시 올바르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한 것을 보면 명나라에 대한 불신이 대단했다.

여기서는 최립과 고경명이 예부 담당 관리에게 보낸 서신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양국 간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예부의 관할이어서 조선 사신이 예부상서와 예부낭중에게 서신을 쓰는 것 역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서신은 이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개인적인, 사적인 성격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작성한 사신들은 사실과 역사만큼 종계와 악명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이념, 그리고 대상을 감동

시키기 위한 감성적 표현에 좀 더 집중했다.

먼저 정축사행 시 최립이 윤두수를 대신 해 예부낭중에게 쓴 서신이다. 정축사행(선조 10년 1577) 때에는 『회진』이 아직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완성된 원고의 사본을 얻어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서둘러야 했던 이면에는 명나라를 믿지 못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사은사는 윤두수로, 그를 대신해 최립이 예부낭중에게 보내는 서신을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서신에서 이미 개정 원고가 완성되어 그 내용상의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종계변무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니와, 아마도 그것은 명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조선 측에서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립은 서두에서 부자와 군신의 윤리를 내세운다. 종계의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혈친에 관한 것으로, 종계가 바뀌는 경우 패륜이어서 치욕이고, 사왕시해는 신하로서 임금을 죽였다는 것인데, 임금과 신하는 인간의 윤기(倫紀)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여서 흑사라도 그 관계가 끊어지면 대악(大惡)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자 군신 윤리를 어느 한 개인이나 그 일가의 또는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윤리와 기강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보편적인 윤리임을 강조한다. 종계와 사왕시해의 오류 개정을 인(仁)의 관점에서 본 것은 기대승과 최립이 유사하지만, 최립은 종계를 일 가문의 문제로 본 남곤이나, 명과 조선의 양국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기대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소홀히 하는 명나라에 대한 이면적 비판이 규건된다.²⁶⁾

다음은 최립이 신사사행 시 김계휘를 대신해서 예부상서에게 쓴 서신이다. 신사년(1581, 선조14년) 사행 시에는 예부상서에게 세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최립이, 두 번째는 고경명이 썼다. 당시 정사는 김계휘(金繼輝)였다. 이번에는 목표가 이미 개정 편찬된 『대명회진』에서 조선의 종계에 관한 오류를 시정한 부분의 사본을 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조선 사신들이 책이 간행될 때까지 북경에 머물면서 종계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는 왕명을 받고 왔으나 이것은 외교 관례에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어서 명나라의 허락이 필요했다. 최립은 전사를 파견

26) 최립, <상예부낭중서(上禮部郎中書(丁丑))>, 『사행문록(四行文錄)』, 『간이집(簡易集)』 권4.

한 이유와 북경에서 시일을 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신을 예부상서에게 보낸다.

흥미 있는 것은 최립이 조선 사신의 입장을 소인과 군자로 나누어 접근한 것이다. 국조가 치욕을 당하고 무함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역대 황제에게 윤허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지금은 새로운 『회전』의 수찬과 반포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전사(專使)를 파견하거나, 무작정 북경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소인의 입장이다. 반면 국조가 다른 사람의 가게로 잘못 편입되고 네 명의 임금을 시해했다는 누명이 『조훈』과 『회전』에 기재되어 천하 사람들이 보게 된 그 원통함이 지극하거니와, 더욱 『회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이때에 속히 전사를 보내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재확인시켜야 한다는 것이 군자의 입장이다. 소인의 주장은 곧 명나라의 입장이어서 이 일이 부자와 군신 관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예부가 이러한 요청을 받고 그냥 팔짱만 끼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소인의 태도라는 함축이다.²⁷⁾

이 서신이 보여주는 큰 변화는 조선의 남다른 친밀한 군신 관계를 부각시킨 점이다. 조선은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이지만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에도 항상 예(禮)에 입각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에도 항상 의(義)에 입각한 예의의 나라이니 임금의 명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임금께서는 사신을 파견하면서 연회를 베풀어 특별히 후대를 해 주셨고, 심지어는 옷을 벗어 주고 음식을 건네주기까지 하시었으며, 떠날 때에는 다시 친히 잔을 들고 술을 따라 주고, 황성이 있는 서쪽 하늘을 향해서 주문(奏文)에 절을 하고는 신들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장된 묘사는 사행의 핵심 목표인 종계의 오류나 사왕시해라는 무고의 해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면서 조선이 끈질기게 그 오류를 시정하려는 이면에는 조선이 갖고 있는 남다른 군신의 관계가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다. 예부상서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도 위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던 군신 간의 윤리 문제를 집요하게 확대시킨다. 국조가 무함을 당한 이 일은 부자간의 큰 인륜과 군신 간의 큰 의리를 범하는 것으로서 삼강이 최대의 변고를 당한 것이요 인간의 도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귀국하지 않

27) 최립, <상예부상서서(上禮部尙書書(辛巳))>, 『사행문록』, 『간이집』 권4.

고 『대명회전』의 간행을 기다리겠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알려주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 이러한 윤리적 접근임을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신사사행 시 고경명이 김계회를 대신해서 예부상서에게 쓴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 고경명은 군신 윤리를 의로, 사신의 상도를 예로 보고,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에 지체하는 것을 의와 예의 충돌로 보면서 신하로서 자신들의 난처함을 알아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한다. 이것은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는 예로,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에는 의에 입각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북경에서 『회전』의 간행을 기다리는 것을 예와 의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 최립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수정본 『대명회전』을 보기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명나라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으면서 이를 위해 전사를 파견하고 북경에 더 머물러야 하는 조선 측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준다. 조선이 지금 고치고자 하는 종계는 부자의 윤리이고 군신의 윤리 문제이며, 더 나아가 사신들이 국왕 선조가 간곡히 말씀하신 명을 수행하는 것 역시 군신지의이다. 그러나 외교관계에서 상대국이 청한 것이 아닌데도 시일을 오래 끌고 귀국하지 않는 것은 국가 간의 예의 문제여서 이 역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방법은 오직 명나라가 사신들이 떠나고 머무름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조선 사신들이 며칠 더 머무른다는 것이 명나라에 크게 보태거나 덜어내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면 예도 의리도 상하지 않고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²⁸⁾

그러나 고경명 역시 종계 문제에 대한 국왕의 지극한 마음을 부각시킨다.

과군이 일을 계승한 이래로 귀로 아름다운 음악을 듣지 않고 눈은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잠을 자도 침석이 편안하지 않고 일야로 머리를 빼고 서쪽으로 향하여 성전[대명회전]의 반포를 바라보면서 선조와 선고가 지하에서 풀지 못한 유감을 위로하고자 한지 대개 지금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²⁹⁾

28) 특히 선조 14년 신사 사행 시 북경에 지체하는 문제가 부각된 것은 명나라가 바로 2년 전인 선조 12년(1579) 조선 사행이 북경에 40일 이상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대명회전』 권108, 예부(禮部) 66, 조공(朝貢) 4, 조공통례(朝貢通例). 구도영, 『조선 전기 대명 육로사행의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제117집, 진단학회, 2013, 92면.

29) 고경명, <상예부상서서(上禮部尙書書)>, 『제봉집유집(霽峯集遺集)』.

이러한 문장을 통해 조선의 종계와 사왕 시해의 오류에 대한 변무가 차츰 명나라의 잘못된 기록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선 후대 왕들의 효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명나라가 먼저 개정을 위한 조선의 노력을 성효(誠孝)로 몰아갔고, 결과적으로 명나라 관리에 보낸 서신들 역시 사실의 오류라는 측면보다 선조의 무함을 풀려는 조선 국왕들의 효성과 충성에 더 초점을 두게 된 것이다. 이것이 명나라 측의 의도된 전략일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대국 명나라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 인색하면서 도리어 충효와 같은 윤리를 상대국을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규건된다.

IV. 종계변무에서 드러난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 인식과 사행문학으로서의 성과

1.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종계변무 관련 문장을 통해 드러난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 인식은 먼저 ‘사실’에 대한 명 측의 관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종계변무의 문제를 일으킨 명 태조가 곧 바로 태조 이성계의 즉위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조훈』에 쓴 내용이 그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더욱 이인임은 친원파의 수장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에 대한 그의 악의적인 기록이 의도된 오류일 수 있거니와, 그것은 조선 창건의 정당성과 정체성에 매우 부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명나라 측에서는 자신들의 착오를 사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역시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측의 모든 변무 주청문에서 이 태조의 종계와 사왕시해라는 무함에 대한 ‘사실’을 되풀이 언급한 것은 명나라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나라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남곤은 주청문에서 『대명회전』이 와전과 떠도는 말에 근거한 책으로 폄하됨으로서 명나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역시 명

나라가 국가의 문물제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에 잘못된 주변국의 역사적 사실을 담는다는 것은 그 책의 권위뿐만 아니라 중국 역대 호한한 전적들의 진실성과 신뢰도, 더 나아가 자국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 시킨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종계 오류와 사왕시해 내용이 조선의 건국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일통지』와 다르다는 점은 이미 모정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검토한 명나라 관리나 학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명나라 신하들이 보여주는 황명수행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이다. 변무 문장들은 매번 개정을 약속한 황제의 칙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되풀이해 거론하면서 이를 조선 군신간의 돈독한 관계와 대비시키고 있거니와, 이러한 이중성은 명나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만력 연간 파견된 주청사들은 첫째 개정 원고를 필사하겠다는 요청을 했다. 우리나라가 무합당한 일을 해명하게 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 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으나 집필할 때 이를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이를 믿고서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 앞으로 『회전』을 반행할 때에도 내용에 **가감**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둘째 사본을 확인한 후 『대명회전』이 중찬된다는 소식을 듣고 “선불리 다루다가 만에 하나라도 빠뜨려 잘못되게 할까”를 우려해서 책이 간행될 때까지 북경에 남아 있겠다고 했다. 명나라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특히 명나라가 주변국의 역사에 세심하지 않은 오만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조선 측의 우려대로 선조 초기까지 사왕시해 부분이 개정한다는 약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계변무가 처음 역사적 사실의 오기라는 관점에서 점차 성효라는 윤리적 문제로 변질된 것은 명나라가 자신들이 저지른 착오를 상대국의 충성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주변국을 통제하는 방식임을 조선 사신들이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무종 황제는 종계와 사왕시해 오류의 개정을 요구하는 조선의 활동을 성효(誠孝)로 규정했는데, 결국 이 일의 핵심은 명나라와 관련된 것이 아닌 조선의 국내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대승은 <변무주>에서 저들의 요청을 들어달라는 예부상서 모정의 글에 대해 무종이 “조선 국왕의 효성”을 생각해서 그대로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

렸고, 세종 황제는 사신들에게 변방의 직임을 근실하게 수행하라고 당부하면서 그대의 '충효가 극진함'을 가상하게 여긴다는 칙서를 내렸다고 기술했다. 여기에는 이를 조선의 국내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명나라가 조선의 청을 받아준다는 명목 하에 '변방의 직무'를 더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에 근거해서 조선 사신들의 변무 역시 윤리 문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신종 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국왕 선조가 예의를 지키는 나라를 맡아 다스리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요청을 유허한다'라고 하여 무함의 개정을 시혜의 차원으로 돌리고 있다.

2. 종계변무 문장의 사행문학으로서의 성과

종계변무 과정은 조선과 명나라 사이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와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여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 측에서는 단순히 이 태조에 대한 잘못된 기록의 수정을 넘어 조선을 명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로 열거한 명 태조의 정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계변무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조선의 정체성 확립이었다. 본고가 이를 사신들의 명나라 인식을 살펴보는 사행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행문학은 사신들이 사행국으로부터 받아온 것과 사행국에 전해 준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이것은 명나라에 간 조선 사신들이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발신자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조 시 예부상서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종계변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최립은 네 차례 사행 후 명나라에 사행하는 지인에게 준 시에서 명나라의 치도(治道)가 융성하지만 이에 비견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자부하면서 명나라를 실컷 구경했으나 천리에 다른 바람이 없다"[千里無異風]라고 했다. 여기서 풍이 풍교나 풍기, 문풍이나 학풍 등 어느 것을 가리키든지 간에 인문학이나 윤리 도덕 면에서 양국간 동일해서 배울 것이 없다는 그의 자신감은 이미 그의 여러 주청문에서 거듭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그가 "오히려 중국 땅의 서너 가지 일(尙有三四事)", 특히 인재 선발, 화폐 유통, 세금 경감 문제 같은 실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명나라에서 배워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

것은 수용자로서의 사신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⁰⁾

반면 조선 사신들이 명나라에 남기거나 영향을 준 것도 있을 것이나 이를 중계변무의 문장으로 제한시켰을 때 변무의 내용이 사실기록의 수정에서 ‘성효’라는 윤리가 그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전술한 것처럼 명나라가 역사적 사실보다는 오히려 후대 왕의 성효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은 명나라가 명교를 중시한 나라였기 때문으로 이 점은 『대명률』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일곱 번째 악으로 규정된 불효는 모반(謀叛) 모대역(謀大逆)처럼 중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와 나란히 십악(十惡)에 포함된다.³¹⁾ 그들이 한 나라를 창건한 군주에 대한 수치스러운 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점을 조선 사신들이 인지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조선의 공문서 역시 선조의 무함을 개정하려는 후대 왕의 정성을 부각시켜 명나라 측의 의도에 따라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명나라 측의 이러한 윤리에 대한 강조가 사신들에게 조선이 진정한 성효의 나라임을 과시하는, 군신 간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조선이 구현하는 충효의 실상을 명나라에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명나라가 비록 명교를 내세우는 국가였으나 진정한 충효의 모습은 오히려 변무 과정을 통해 조선 국왕과 신하 간의 한결같은 자세에서 드러난 것이다. 충효는 조상에게 지워진 잘못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후대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바치는 신하들의 성실성과 정성에 기반하는 것이다. 명 나라 황제가 주청문을 받고 되풀이해 언급한 ‘성효’는 충효나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효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진실로 효’라는 감탄의 의미도 함축된다.

덧붙여 조선 사신들의 명나라의 태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조선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쓴 글 중에는 “우리나라가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 또는 “바다 한 구석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나라이지만”이라고 한 표현이 보인다. 영토나 위치로는 천하의 중심임을 자부하는 대국 명나라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부자 군신

30) 최립, <송박첨추자룡봉사부경사시서(送朴僉樞子龍奉使赴京師詩序)>, 『간이집』 권3.

31) 『대명률집해(大明律集解)』 부례(附例) 권1 명례(名例). 維基文庫.

간의 윤리에서는 뛰어난 나라라는 자존감이 함축된 구절이다. “소방이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만,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에도 항상 예(禮)에 입각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에도 항상 의(義)에 입각하면서 혹시라도 이를 어겨 저버릴까 늘 걱정해 왔습니다.”³²⁾와 같은 것이 그러하거니와, 이러한 표현은 조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명나라를 설득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유효한 글짓기 방식이다. 위 구절들에는 조선은 군신 간의 예의가 공고한 나라이고, 윤리 도덕의 측면에서 동이가 아닌 중화에 속한다는 자부심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작성자의 전략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차별화가 어느 정도 사신들 각자 또는 좀 더 크게 그 시기 조선 문사들의 작품이나 정신세계에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고 자기비하적인 표현으로 포장하면서도 사신들이 명나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의 비교우위적인 특성들을 찾아내면서 갖게 된 자기 인식은 명나라 관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고는 명나라 태조가 『황명조훈』에 기록한 조선 태조 이성계의 종계 오류와 그가 고려의 네 왕을 시해했다는 악명을 바로잡기 위해 명나라에 사행한 이른 바 종계변무(宗系辨誣) 사신들이 문장을 통해 보여준 명나라 인식과 이를 통해 드러난 명나라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종계변무의 과정에서 명나라는 황명 수행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한편으로 일자불개(一字不改)라는 구절에 구속되면서도 황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나 ‘사실 기록’ 또는 보존 의식이 매우 소홀해서, 결과적으로 호한한 중국 역대 전적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종종 시 종계 문제를 다시 제기할 때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었는데, 그때 마침 민가에서 『객부조례(客部條例)』를 얻어

32) 최립, <상예부상서서(上禮部尙書書(辛巳))>, 『사행문록』, 『간이집』 권4.

영락 황제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³³⁾ 공식문서에 대한 이러한 소홀함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명 태조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 정몽주가 명 태조의 하평축사로 남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명에서 받은 자문들을 잃어버린다. 다시 남경에 돌아가 자문의 재발급을 요청했는데, 잃어버린 자문 세 가지 중 아악 증경에 관한 것은 초본이 유실되었다고 하여 받지 못했다.³⁴⁾ 중요한 외교 문서가 몇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중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고려 말부터 시작된 명나라 사행은 처음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 후 어느 정도 개선되기는 했으나 특히 종계변무를 위한 사행에서는 더욱 그 어려움이 드러났다. 선조 21년(1588) 2월 유흥이 완성된 『대명회전』[付卷]을 받아오기 위해 예부에 정문을 올렸으나 예부가 아직 황제께서 보시지 않았다 하여 이를 어렵게 여기자 이에 유흥과 그와 함께 간 이들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청하면서 심지어는 머리를 찢어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더니 이에 감동한 예부상서 심리(沈鯉)가 황제에게 고하여 허락을 받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⁵⁾ 이와 같이 조선이 그 해결을 위해 바친 노력과 정성은 이 태조에 관한 명나라 측의 오기가 문명국 조선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관점 때문이었다. 유흥이 『대명회전』을 받아왔을 때 선조는 “삼한의 모든 백성들과 만물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없다가 있게 하였고, 인군이 없다가 있게 하였다.” “금수의 땅이었던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로 변화시켰다”라고 말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³⁶⁾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나 적어도 당시 조선 국왕과 사신들에게 변무활동은 문명의 회복을 위한 행진이었다.

이러한 180년간에 걸친 조선 사신들의 노력은 단지 『대명회전』의 부권에 첨부되는 것으로 끝났으나 조선이 자부하는 군신 간의 예의는 지식인들의 마음에 한층 더 강력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비록 종계문제를 다루면서 명나라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명이 망한 후 황제에 대한 예의를 다한 것은 그것이 조선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윤

33)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 12월 25일.

34) 『고려사(高麗史)』 권44, 공민왕세가(恭愍王世家) 22년 7월 임자조.

35) 『선조실록』 선조 21년(1588) 5월 2일.

36) 『국조보감(國朝寶鑑)』 권20, 선조조 6, 21년(1588) 3월.

리라는 관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명사(明史)』 외국전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명 태조 조훈의 기록이 전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그동안 문장을 통한 조선 사신들의 줄기찬 수고가 이룩한 성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大明律集解』

『大明會典』

『太宗實錄』,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皇明祖訓』

『厚光世牒』

『欽定四庫全書』

高敬命, 『霽峯集』

權穰, 『冲齋集』

奇大升, 『高峯集』

李肯翊, 『燃藜室記述』

崔岙, 『簡易集』

2. 논문

계승범, 『조선 속의 명나라: 大報壇을 통해서 본 조선 지배층의 중화 인식』, 『명청사연구』 제35집, 명청사학회, 2011, 153~185면.

구도영, 『조선 전기 대명 육로사행의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제117집, 2013, 54~97면.

권인용, 『명 중기 조선의 宗系辨誣와 대명외교-권벌의 조천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24집, 명청사학회, 2005, 93~116면.

박성주, 『朝·明 관계에서의 중계문제』, 『慶州史學』 제22집, 경주사학회, 2003, 195~220면.

Correction of Historical Records and Joseon Envoys' Recognition of Ming China

Lee, Hai-Soon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recognition of Ming China reflected in the official documents and the letters of Joseon envoys for revising the wrong lineage about the king Taejo(1335-1408) and malicious slander that he killed four kings of Goryeo in Ming Taejo's *Huang Ming Zu Xun*(皇明祖訓). Joseon envoys' effort to correct the records called jonggyebyeonmu[宗系辨誣] began from King Taejong, but it was intensively made from King Jungjong to King Seonjo. In the process of requesting the correction of the wrong historical records it was official documents jucheongmun[奏請文] sending to Ming Emperor and letters to his high officers concerned that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Jonggyebunmu was perform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was 'problem-raised' one, represented by King Taejong's jucheongmun; it focused on describing the historical facts, emphasizing the close relationship to Ming China. The second stage was 'correction-actualized' one: Jucheongmun of Nam Gon and Gi Daeseong stressed the ethics between father and son as well as king and subject; they put in Ming emperors' answers in detail in each Jucheongmun, implicating their repeated nonperformance besides reminding of their responsibility for not keeping promise to Joseon kings. The final stage was 'revision-confirmed' one. Choi Rip and Go Gyeongmyeong highlighted Joseon king's wholeheartedness toward the correction and peculiar Joseon king-subject relationship and ethics. The alteration of the focus from the erroneous historical records to ethical matters was attributed to Ming's consideration of the correction as a matter of filial piety.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spite of altering the nature of the request Joseon Jucheongmun showed Ming emperors and his subjects the standard of Joseon filial piety. The reason Joseon made utmost effort to the correction was because the error could shake the basis of Joseon as a civilized country; in short all the efforts

for the correction were, to Joseon, meant to be a march for restoring civilization.

keywords: jonggyebyunmu, *Huang-Ming-Zu-Xun*, Ming, Envoy, Nam Gon, Gi Daeseong, Choi Rip.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